

【연구논문】

집단 정체성 약화와 개인의 탄생: 『사일러스 라팜의 성공』에 나타난 하웰즈의 시대 인식

이동환

(경인교육대학교)

1. 서론: 19세기 말 미국의 자본주의와 개인의 탄생

하웰즈(William Dean Howells, 1837~1920)의 『사일러스 라팜의 성공』(*The Rise of Silas Lapham*, 1885. 이하 『라팜』)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일러스 라팜(Silas Lapham)이 남북전쟁에 복군 병사(전쟁에서 장교로 승진)로 참전하여 부하인 짐(Jim Millon) 덕분에 목숨을 건진 후 사회로 복귀하여 물질적인 성공과 몰락을 거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풍속소설이다. 사일러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버몬트주 야산에서 페인트용 광물을 발견하여 사업에 성공한 이후 보스턴의 교양있는 상류층인 코리 가문(the Coreys)과 교제하게 된다. 두 가문의 만남은 19세기 말의 기술문명과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상류층과 하류층, 그리고 동부와 서부 등이 섞이는 사회적 풍경을 보여준다. 문화 충돌에 버금가는 두 가문의 교제는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하거나 이상적인 제 3지대를 창출하지 못한 채 계급 정체성 약화를 초래한다. 코리 가문이 까다로운 예의범절에 교양이라는 표지를 붙인 후 물질을 저

급한 취향으로 몰아세우며 계급적 지위를 고수하거나 반대로 라팜 가문이 금력으로 취향을 구입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두 집안 젊은 남녀의 결혼 문제는 계급 갈등을 뛰어 넘어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갈등까지 확대되면서 인물들은 미국 안팎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라팜』은 제임스(Henry James)가 하웰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의 가공할 상상력 중에서도 엄청난 리얼리티와 등급”을 지녔으며 “진정으로 삶을 포착하여 감동을 전달한다”(James 394)고 극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소설로 인정받아왔다. 텍스트의 유기성에 주목한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사일러스의 물질적 쇠락과 그의 도덕적 성공이 맞교환되는 대칭 구도 분석, 그의 장녀 페넬로페(Penelope Lapham)의 감상주의 매몰과 극복, 그리고 작품에서 이들 두 플롯의 상관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Tanselle, “Architecture” 435; Wells, 11; Pizer 322). 하웰즈의 19세기 말 미국사회 비판에 초점을 둔 경우에는 신흥 백만장자와 전통적 상류층이 뒤섞이는 “1870년과 80년대의 더욱 유동적인 보스턴 사회 질서 변화”(Vanderbilt 133)에 초점을 두면서 동부와 서부, 도시와 시골, 물질과 정신, 취향과 도덕,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자본가와 식자층, 부모와 자식 세대의 대립과 같은 이분 구도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라팜 가문의 딸 페넬로페와 코리 가문의 아들 톰(Tom Corey)의 결혼과 해외 이주라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내세운 내부 갈등의 봉합, 19세기 말 미국사회의 가치 다원화 현상, 대중문화를 떠받치는 자본주의에 대한 하웰즈의 비판과 이런 질서로의 포섭 등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Lavin 364; Spears 168; Li 120; 백준길 671). 사일러스의 물질과 도덕적 흥망 성쇠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다면, 기존 비평들은 주로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가 작품에 투영된 양상에 집중하지만, 계급, 지역, 세대와 같은 집단 정체성에서 벗어나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는 다양한 개인군상의 출현에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계급, 가정, 지역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약화되고 자본의 제국주의적 해외 팽창이 가시화되는 현실 속에서 『라팜』의 인물들이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개인으로 거듭나는 양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880년대의 미국사회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귀족계급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귀족 명문가들이 힘을 잃는 현실은 “제 각각인 귀족들을 단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도록 만드는 경향”(Wiebe 112)으로 표면화되었고, 이질 집단 간 결혼은 가정을 매개로 유지되던 귀족계급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현상 중 하나였다. 18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계급적 가치의 획득과 계급 사다리의 상이한 위치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주체로서 가정이 지니던 역할은 침해받기 시작하였다”(Coontz 332). 문제는 신흥 중산층이 경제적 이익에 주안점을 둔 이질적 부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귀족이 지니던 계급적 동질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즉, 신흥 중산층은 사회적 가치의 담지자로서 귀족계급이 지니던 위상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팜』은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인물들이 계급, 가정, 지역과 같은 집단 정체성에 의존하기보다 각자의 처지에 맞추어 개인으로서의 삶을 모색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라팜 부부는 물질 혹은 취향에 집착하지 않고 부모가 물려준 버몬트 시골로 귀향하면서 사회적 삶으로부터 한 발 물러선다. 코리 부부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보스턴 상류층만의 고상한 취향을 여전히 고수하고, 톱과 페넬로페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미국 바깥으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려 한다. 로저스(Milton K. Rogers)는 작품 내내 사일러스를 괴롭히며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팜 가문의 차녀 아이린(Irene Lapham)은 공정하고 영민하면서도 강철과 같은 단단함으로 독립적 기질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삶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처럼 각 인물들은 집단정체성보다 도덕, 취향, 인간관계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시로 변하는 맥락을 파악하며 유

연하게 대처한다. 위의 인물들이 파편화된 모습은 자본주의 발달의 이면으로 볼 수 있다.

하웰즈는 『라팜』을 통해 19세기 말 미국의 자본주의 발달과 개인주의 확산 속에서 개인들을 묶는 공유가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펼쳐놓는다. 그가 볼 때, 평범한 개인들은 미국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는 경험을 거쳐 평등, 호의, 친절, 정직 등의 도덕성을 습득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파편화로 치달지 않는다(*Criticism* 66). 미국적 경험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획득한다는 하웰즈의 생각은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 및 도덕성과 연관된 민주적 가치 사이의 ‘느슨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와 가까운 변경지대 출신이라 새삼 미국인임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일러스와 동부와 다른 텍사스의 문화를 경험한 톰은 미연방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집단 정체성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을 모색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톰과 페넬로페가 결혼을 하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사업을 확장하는 제국주의적 암시는 미국 내외에서 인물들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 갈등을 방지한다.

위처럼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은 민주적 가치가 적용되는 터전을 제공한다. 작품 말미에서, 사일러스는 정직을 내세워 사회적 복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등, 정직, 호의를 보여주며, 코리 부부도 라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심이 생긴다는 점에서 미약하게나마 호의적 태도를 내비친다. 이런 의미에서, 『라팜』의 성취는 물질적 이해를 초탈한 사일러스 개인의 인격적 성숙 혹은 개인들 간의 갈등을 잠정적으로 봉합하는 제국주의 팽창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웰즈는 혈연이나 계급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라는 중간 단계의 가치가 와해되고 개인주의가 하위 단계의 가치로 부상하던 현실 하에서 후자만으로 사회적 유대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해했다. 그는 개인들이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민주적 덕목을 느슨하게나마 결합시켜 상위 단계의 가치를 내세운

후, 이를 체현한 사일러스를 내세워 19세기 말 미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개
인상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2. 두 계급의 정체성과 충돌

(1) 라팜 가문: 낭만적 물질주의

『라팜』은 잡지사 기자 바틀리(Bartley Hubbard)가 사일러스를 인터뷰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사일러스는 “굳게 앙다문 입술 언저리까지 자란
짧고 불그스레한 회색 턱수염에 각지고 선명한 턱의 일부만 덮인” 사업
가적 풍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캐나다에 붙은 버몬트 출신으로서 “가까
스로 미국 시민으로 입적된” 55년간의 인생역정을 감상적으로 풀어놓는
양면적인 모습을 내비친다.¹⁾ 그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인으로 묶여진”(4)
경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서부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광산을 이용한 페인트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서 자신과 남들의 계급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확신에 매몰된 낭
만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는 물질적 성공을 고향을 지키며 견마지로를
다한 개인의 정신 승리와 등가적으로 취급하는 낭만적인 물질주의자로
성격화된다(7). 그러나 그의 사업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물려받은 자연을 파괴하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번창한 덕분에 성장
한 것이다. 그는 “풍경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풍경을 위해 인간
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14)라며 야산을 파괴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또
한, 그의 아내 퍼시스(Mrs. Persis Lapham)는 1-2년 정도 로저스에게 도
움을 받아 사업이 힘들 때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15).

“단순하고, 명료하고, 대담하며, 직설적인 정신과 행동”으로 미네랄 페

1) William Deans Howells, *The Rise of Silas Lapham* (New York: Norton, 1982) 4.
이하 괄호 안 숫자는 위 판본의 해당 면을 지칭함.

인트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강골 공화당 지지자”(19)인 사일러스는 19세기 말에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진 남성성을 체현한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신중함과 도덕성과 같이 “남성의 자제력이라는 빅토리아식 코드”가 중시되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신체의 강인함과 역셈을 강조하는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출현하면서 전자는 지나치게 세련되고 여성화된 구습 행동 방식으로 낙인찍힌다(Lavin 364). “사일러스의 예절 부재와 변경시대 성격은 새로이 대두되던 행동하는 남성, 거친 사내, 그리고 개인이라는 남성성 개념들로 그의 정체성을 강조”(Lavin 366)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당대의 남성상이 이렇다보니 “하웰즈가 남성적인 정상 상태와 리얼리즘을 연계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Bell 37). 자기 확신에 들뜬 낭만주의자의 관념지향성과 강인한 남성성이 표방하는 물질지향성은 사일러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유아론에 사로잡힌 사일러스의 편협한 시야는 과시적 물질 소비로 점철된 라팜 가문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라팜 사람들은 비싼 프레스코로 집을 치장하고 여행에서 아낌없이 돈을 쓰며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지만 “사교를 위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23). 이들은 관성적으로 물질을 소비하면서 “그 외에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24)에 정형화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이런 협애한 삶에 고상함이 결핍된 취향을 통해 드러난다. 집안 내부를 장식한 풍경에 담긴 “서부의 산맥과 협곡,” 링컨의 노예 해방을 표현한 조각, 그리고 짙은 녹색 카펫이 깔린 응접실의 분위기는 서술자에 의해 “폭력적인 대조”(190)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된다. 이처럼 과도한 장식물 치장은 도금기(the Gilded Age) 중산층 가정의 “자족성과 신분상승에 대한 야망을 천명”(Coontz 266)한 것으로 물질의 힘으로 계급적 열등감을 대체하려는 세태를 시각화한다. 도금기에 집을 꾸미는 것은 “대량생산된 장식품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 정체성과 계급 정체성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Coontz 268).

사일러스의 차녀 아이린과 톰의 만남은 보스턴 상류층과 어울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던 라팜 사람들에게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사일러스는 톰과 아이린을 맺어주면서 자신의 잠재된 신분 상승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류층 거주지인 백 베이(Back Bay)에 저택을 짓겠다고 결심한다(27). “거의 에텐동산 수준으로 계급에 무지한 라팜 사람들의 자기만족”(Marchand 286)은 저택 건축이라는 간단한 물질 소비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사일러스는 상류층 사람들이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가 비컨 힐 혹은 뉴 랜드이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26)고 주장한다. 그는 고집스럽게 “수많은 새 건물들을 관찰한 것으로부터 형성된 생각들”을 저택 건축에 재현하려고 하지만, 그의 계획은 “4층 높이에 브라운스톤 현관과 공기실을 갖춘 프랑스식 지붕”(35)처럼 비싸고 화려한 것에 탐닉하여 건축가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취향 부재만 보여줄 뿐이다.

물질의 화려함으로 상류층의 고상한 취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일러스의 생각은 아래에 묘사된 아이린의 화려한 외모와 짝패를 이룬다.

그녀[아이린]은 매우 아리따운 외모를 지닌 소녀였다. ... 그러나 그녀의 엄청난 아름다움—그것은 매우 엄청났다—은 그녀가 머금은 빛깔 덕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과일 혹은 꽃에다 사용하는 것처럼, 맛있다는 것 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효과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붉었다 ... 그리고 그녀의 볼과 관자의 색조는 5월의 아네모네꽃과 사과꽃과 복숭아에 던지시 나타나있는 것과 같았다. 종종 이런 안색을 무디게 하는 회색 대신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강렬했다 부드러운 파란색이었으며, 이것들은 무언가를 부드럽게 나풀거리는 불길마냥 쳐다볼 때 불타오르는 듯 보였다. 언니[페넬로페]와 엄마는 그녀의 눈이 항상 아이린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표현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런 말이 그녀가 분별이 없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She[Irene] was a very pretty figure of a girl ... But her great beauty—and it was very great—was in her coloring. This was of an effect for which

there is no word but delicious, as we use it of fruit or flowers. She had red hair ... and the tints of her cheeks and temples were such as suggested May-flowers and apple-blossoms and peaches. Instead of the gray that often dulls this complexion, her eyes were of a blue at once intense and tender, and they seemed to burn on what they looked at with a soft, lambent flame. It was understood by her sister[Penelope] and mother that her eyes always expressed a great deal more than Irene ever thought or felt; but this is not saying that she was not a very sensible girl and very honest. (45-46)

색깔로 표상화된 아이린의 정체성은 사일러스의 페인트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퍼시스가 관찰한 바와 같이, 사일러스에게 “페인트는 비즈니스 이상의 무엇이었으니, 그것은 걱정에 가까운 어떤 정서”로서 “꺼지지 않는 활력”(44)을 의미한다. 페인트는 대상의 내면이 아닌 표피를 꾸미는 매질이라는 점에서,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진실성이 사라지고 껍데기의 화려함만 남은 당대의 문화풍토를 “다채색문명”(Chromo civilization)으로 비판한 19세기 미국의 저널리스트 가드킨(Edwin. L. Godkin)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가드킨은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거나 생각해온 것에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잡지와 같은 문화상품을 구매하여 얻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야만적인 열정으로 숭배”하고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도외시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일종의 정신과 도덕의 무질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²⁾ 다채로운 표면으로 형상화된 아이린의 이미지는 겉보기의 화려함을 깊이로 동일시하는 사일러스의 낭만적 자기중심성, 충동성, 그럴싸한 과정, 그리고 미성숙한 내면세계와 상통한다(Li 104; Prioleau 77).

라팜 사람들은 균중의 익명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의

2) Edwin. L. Godkin, “Chromo-Civilization,” *Nation* 19 (September 24, 1874): 201-2. http://civilwar.picturinghistory.gc.cuny.edu/presentations-about-visual-media/prints/chromo-civilization_the_nation_1874/i/29/ 2017년 2월 25일 접속. 하웰즈가 가드킨의 1860년에 창간한 『네이션』(*Nation*)지의 편집진에 합류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Anesko 502)에서 다채색문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힘이 정신의 가치에 필적한다고 생각한다. 사일러스는 톰에게 6-7년 동안 배를 타고 집과 사무실을 오갔으나 익숙한 얼굴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매 순간 완전히 신선한 것 같다”(70)고 느낀다. 그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란 여느 표정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꿰뚫고 또 꿰뚫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70). 그에게는 외양만이 상대방의 계급이나 성품을 알 수 있는 판단 준거이다. 이 때, 외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면세계에 무관심하거나 외양만이 진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착각할 수 있으며, 독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가령, 독자들은 전장에서 대신 죽은 짐에 대한 부채의식에 시달리던 사일러스가 짐의 딸인 제릴라(Miss Zerrilla Dewey)를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녀를 사일러스의 정부(情婦)로 의심하기 쉽다. 즉, “라팜 부인이나 다른 인물들처럼 실체가 아닌 외양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Jenkins 39) 우를 범하는 것이다.

외양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풍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사고의 깊이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사일러스는 밤이 되면 피곤하여 무거운 글을 읽기 힘들어서 신문만 뒤적거리거나 “웃게 만들 무언가”(77)를 찾아 환등기(stereopticon)로 재생된 영상에 빠져든다. 사일러스 뿐만 아니라 아이린도 톰이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로웰(James Russell Lowell) 등 당대 미국 문인들을 언급할 때 뜬금없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배우들만 거명한다(99-100). 대중문화 탐닉은 기술 발달로 창출된 가공의 욕구가 개인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적인 일상을 지배한 나머지 철학자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지적한 “일차원적 인간”(one-dimensional society)이 주를 이루는 풍경을 연출한다(Girgus 110). 사람들은 극장 등에서 대중문화를 경험하면서 지역, 이념, 계급 등 집단 정체성을 잊고 익명성이라는 가면 속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2) 코리 가문: 고상한 속물근성

톰의 아버지 브롬필드(Bromfield Corey)를 비롯한 코리 사람들은 라팜 사람들의 낮은 취향을 거울로 삼아 상류층으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 브롬필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금의 모든 문명은 문학으로부터 나온다”(104)며 대중이 문학작품을 음미하지 않고 즉석식품처럼 가볍게 연극으로 즐기는 풍조를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여긴다. 그는 겉으로만 문명을 부르짖을 뿐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중들 때문에 문명이 “개인들의 사건”으로 전락하고 계급적 정체성도 약화된 세태를 비판한다(103). 톰 역시 『미들마치』(*Middle March*)와 『대니얼 데론다』(*Daniel Deronda*)를 모르는 아이린과 대화 단절을 경험(97)한 후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작가의 이름이나 수준을 알아보는 수고도 거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어버린다고 깎아내린다(102). 그러나 “아마도 동떨어진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을 것”이기에 그의 위트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서술자의 논평은 톰의 고상한 취향이 소통 단절과 자기 고립에 불과함을 암시한다(111).

교양과 고상함은 코리 사람들에게 단순한 취향이나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계급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코리부인(Mrs. Anna Corey)은 “미네랄 페인트 킹과 어울리는 것”이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끔찍하다!”(82)고 내뱉는다. 브롬필드도 “톰이 그런 쪽[배금주의]으로 타락했는지 때때로 알아봤는데, 내 생각에 톰은 이를 거부하며 양심상 부끄럽다고 여길 것”(83)이라고 말한다. 코리부인은 톰의 배필로 거론되는 아이린이 외모도 출중하고 행실도 바르다고 여기지만 고상한 취향을 갖추지 못하여 “매우 밋밋하다”(very insipid)고 못마땅해 한다(83). 코리 사람들은 물질이나 비즈니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신흥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취향에 의거한 전통적인 계급 가치의 훼손을 염려하기에 라팜 사람들과의 소통을 꺼리는 것이다.

브롬필드는 생계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팜 집안의 처자와 연을 맺으려는 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막상 톰이 상류층이라는 계급 정체성으로부터의 이탈하려는 점은 불만스럽다. 이런 그의 생각은 코리부인을 향한 아래의 대사에 잘 나타나있다.

바야흐로 희생과 타협을 해야되는 세상인 것이라오 그 아이[톰]는 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는지, 내가 한가로이 지내던 시절에 교제하였던 유럽의 고상한 인사들의 사례에 조금도 감동받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듯 보였소 자기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말아오 나는 톰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소

[I]t is a world of sacrifices and compromises. He[Tom] couldn't agree with me, and he was not in the least moved by the example of persons of quality in Europe, which I alleged in support of the life of idleness. It appears that he wishes to do something—to do something for himself. I am afraid that Tom is selfish. (84)

브롬필드는 톰이 사일러스와 사업을 하더라도 결혼은 아이린과 하지 않기를 바란다(89). 그는 물질을 추구하더라도 계급의 표지인 교양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코리 가문도 물질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브롬필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인도 무역상이었다는 점(61)에서, 코리 가문도 “실용성과 상식의 흔적들”(112)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롬필드야말로 물질에 탐닉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는 경제활동을 등한시한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즐겼음에도 아들의 인생에 참견하려 든다. 서술자는 이를 두고 브롬필드가 젊은 시절부터 조상이 축적한 재산을 소진하고 고담준론에 매몰되어 물질과 교양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은 채 “훌륭한 자질”만 키운 나머지 나이가 들어 “점점 더 은둔의 삶으로 이끌렸다”(84)고 비꼰다. 서술자는 브롬필드가 “열정적인 작자이기는 해도, 약간은 목표가 불명확하여, 누군가를 평범함으로부터

구제할 극소량의 영감만 지녔다”(111)며 그가 지닌 교양을 별 것 아닌 것이라고 치부한다.

브롬필드는 사일러스, 퍼시스, 아이린 말고도 보스틴 상류층 인사들을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며 라팜 사람들에게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취향을 공유하는 내부 집단에게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려 한다. 그는 만찬을 통해 라팜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해서 계급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코리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야말로 톰이 환상을 갖고 있다면, 이를 치료할 최선책”(151)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고상한 취향을 나눌 상류층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리 사람들은 전통적인 귀족계급이 사라져 “타운에 어느 누구도 없어서”(142) 외부와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외모도 근사하고 자연 물상과 소설에 대해 박식하지만 누군가와 교류하며 취향을 나누지 못한 채 보여주기 위한 지식의 집적에 몰두하는 브롬필드의 두 딸 릴리(Lily)와 내니(Nanny)를 통해 비판적으로 묘사된다(137). 언니인 릴리는 해조류나 독버섯에 대한 연구물들을 산출할 정도로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의 좋은 점이 별로 없다는 점을 알기에 마무리 짓지도 못할 것이며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요량이었다.” 동생인 내니는 “통렬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확하게 재현된 수많은 소설들을 읽었으며 소설과 삶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점을 무척 후회스러울 정도로 많이 발견하였다”(137). 소수의 상류층이 고립되어 지내다보니 다른 세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만찬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코리부인의 언급(151)은 소수의 상류층이 인척관계로 얽힌 보스틴 상류층의 위기를 시사한다. 코리부인이 라팜 사람들에게 보낸 초대장에 “친애하는 라팜 장군님”(157)이라고 명칭을 잘못 기재한 점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만의 예의범절에 골몰하는 상류층의 불통과 고립을 보여준다.

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가족들과 달리 라팜 사람들과 교

류하려 노력한다. 그는 상류층의 쇠락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했고, 이런 이유로 그는 다른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가 코리부인을 향해 ‘불순한’ 목적으로 라팜 가문 사람들과의 만찬을 주선할 요량이라면 “만찬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155)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물질 대 취향: 계급적 가치의 충돌

이 작품에서 두 가문의 만남으로 형상화된 계급 간 충돌은 신흥 부자들의 물질주의와 상류층의 고답적 취향 둘 다 사회적 공유가치로서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정은 19세기 중반까지 시장경제의 경쟁으로부터의 피난처이자 구성원의 휴식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의 전초기지로서 계급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심지어 1870년대 도금기의 기업 자본주의 하에서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이 축소되었음에도, 가정은 여전히 “완전히 사적이거나 개인적 성취의 근거지가 아닌” 상태에서 “계급의 기능과 유대 역시 극도로 의식하는” 보수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Coontz 246). 계급 정체성의 유지라는 가정의 기능은 19세기 말 대량생산 자본주의로 인해 여가 문화가 생겨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³⁾ 브로드헤드(Richard H. Broadhead)의 말처럼 『라팜』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즉, “『라팜』은 당대의 세습 상류층과 산업계의 신흥 부자들 모두 “여름나기”를 의무로 만들었음에 주목하는데, 하웰즈는 이러한 휴가보내기가 계급끼리 만나는 사교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넌지시 말한다. 실제로 산업계의 부자인 라팜 사람들이 명문가인 코리 사람들도 세인트로렌스에서 부인과 아이들이 여름을 보낼 때 최초로 만난다”(Broadhead 125).

3)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보스턴 사람들이 여름에 탈출하는 현상은 출판물에 자주 언급되었으며 종종 일상 대화에서 언급되었다”(Tansell, “Boston” 60).

여가 문화는 계급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보다는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명명한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확산시켜 신흥 부자들이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또 다른 계급적 표지를 만들어내는 장으로 변질되었다. 라팜 부부가 코리 사람들과 교류할 생각을 품는 이유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사일러스는 “브롬필드보다 10배나 가치있는 약속어음을 지녔다”(105)며 상류층의 예의범절을 가게에서 옷을 사서 입는 것과 같다(159)고 이해한다. 그리고 퍼시스는 코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160). 그러나 물질은 취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사일러스는 매사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브롬필드를 처음 만난 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구입할 수 없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흐릿한 비잔”(128)에 호기심을 느끼며 코리 사람들과 교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브롬필드가 지닌 “흐릿한 비잔”이 물질로 대체되지 않기에 예의범절과 교양이 부족한 “자신들은 무가치하고 코리 사람들은 특출하다”(Marchland 293)고 인정한다.

자격지심을 느낀 라팜 부부는 재화를 통해 계급적 한계의 극복하려고 한다. 실제로, 계급의 표지로 작용하던 예의범절은 19세기 후반에 관련 도서와 잡지의 간행을 통해 시장의 재화로 편입되었다. 이런 글들이 출판 시장에서 번창하면서 “결과적으로 점잖음(gentility)이 점차 사회적 욕망과 구입할 수 있는 스타일이자 재화가 되어 버렸다”(Kasson 43-44). 안타깝게도, 사일러스가 책으로 예의범절을 익히지만 너무도 까다로와 분통을 터뜨리는 것처럼(163),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시장에서 획득한 예의범절은 지식이나 취향이 될 수는 있어도 이들을 “점잖은 부류”로 만들 수는 없었다. “점잖음과 능변(eloquence)은 배운다기보다 [무의식적인 계급적 관습 하에서] 흡수되어야 할 것”(Broaddus 6)이기 때문이다. 사일러스는 “코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픈 신분 상승 열망”이 있음에도 라팜 사람들 스스로가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무기력함”마저 느끼게 된다(Marchand 289). “묵직한 물질이 비물질적 부로

변형되고, 금괴들이 사회 상류층의 선결조건인 교양있는 예의범절로 정화된다”(Crowley, “Introduction” 164)는 사일러스의 연금술사적 믿음은 통용되지 않는다.

두 가문의 만찬은 사일러스가 물질의 한계와 계급의 차이를 깨닫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전환점 구실을 한다. 사일러스는 “원칙적으로 금주주의자”이지만 상류층 사람들의 예의범절을 어기지 않을까 “온갖 겁을 집어먹고” 술을 마셨으며(168), 그 결과 그는 감춰둔 자신의 트라우마를 노출하고 만다. 실제로 그는 짐의 딸인 듀이양(Miss Zerrilla Dewey)을 회사의 비서로 고용하고 짐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시달리는 상태이기도 하다(180, 185). 그런데 브롬필드는 남북전쟁에서 부하 짐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일러스의 트라우마를 그림같이 채색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낭만화시켜 버리고 상류층 참석자들은 이런 낭만적 인식에 동조한다(179). 사일러스와 만찬 참석자들의 인식 차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브롬필드 및 만찬 참석자들이 그의 말을 낭만적으로 곡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일러스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사일러스는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별거벗겨져 대중의 익명성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사라진 것 이외에도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대로 전달되지 않고 낭만적으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것을 강하게 의식한다(185-86). 역설적으로, 그가 느낀 수치심과 불안함은 사실은 오히려 재현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사업가라는 페르소나에 가려진 몰개성을 걷어내고 사일러스라는 개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발점이 된다.

만찬 참석자들이 라팜 가문의 저택 건축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취향과 예의범절에 가려진 보스턴 상류층의 저속한 이면을 노출한다.

젊은 코리는 그것의 매력을 증언했으나, 건축가는 웃으며 자기가 그것을 근사하게 만들 수 있었더라면 자신의 고객이 지닌 실제적인 것에 대한 공감 덕분이라고 말했다.

브롬필드 코리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공감이란 좋은 것이죠”라고 말한 후, 고개를 비밀스럽게 라팜 부인에게 기울인 후 “라팜 부인, 저 자가 부인의 남편한테 한 방 먹이는 거죠? 저 친구는 자금 도용에 능한 끔찍한 작자이지요!”라고 덧붙였다.

라팜 부인은 웃었지만, 볼거진 얼굴을 의식하면서, 대령님[사일러스]이 자기관리법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답했다.

Young Corey testified to its loveliness, and the architect said laughingly that if he had been able to make a nice thing of it, he owed it to the practical sympathy of his client.

“Practical sympathy is good,” said Bromfield Corey; and, slanting his head confidentially to Mrs. Lapham, he added, “Does he bleed your husband, Mrs. Lapham? He’s a terrible fellow for appropriations!”

Mrs. Lapham laughed, reddening consciously, and said she guessed the Colonel[Silas] knew how to take care of himself. (169)

브롬필드는 건축가도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된 사일러스와 똑같은 부류라고 농담을 던지고, 퍼시스는 이 농담의 속뜻을 간파한 후 사일러스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예들러 응수한다. “실제적인 것에 대한 공감”이라는 사일러스의 취향은 브롬필드에게 또 다른 취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저속한 물질적 사고로 격하된다. 브롬필드는 고풍스러운 맨션을 아무리 모방해도 “재현하려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급 구분을 시도한다(170).

브롬필드는 만찬에 참석한 자선사업가 킹즈베리양(Miss Kingsbury)의 감상주의도 계급적 구분의 제물로 삼는다. 킹즈베리양의 감상적인 면모는 그녀가 『눈물이, 부질없는 눈물이』(*Tears, Idle Tears*)라는 소설에 폭 빠진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174).⁴⁾ 브롬필드는 빈민구제를 내세우는 자선사업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치지 않고 낭만적 감수성에

4) 하웰즈는 이 소설의 제목을 테니스(Alfred, Lord Tennyson)의 유명한 동명 시집에서 착상하였다.

매몰된 자아도취에 불과하다며 자선사업 모금액을 “삼페인이나 담배에 소진한다”고 힐난한다(170). 시웰 목사(Mr. Sewall) 역시 현실 맥락에서 유리된 킹즈베리양의 감상주의를 자기희생을 내세우고 감정을 쥐어짜는 구닥다리 영웅 중심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소설을 비판한다. 그는 “소설가들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진실한 비율과 관계에 따라 채색한다면 우리에게 최상의 도움을 주는 것”(175)이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웰 목사의 생각은 현실과 무관한 낭만적 영웅주의 및 계급과 같은 집단 정체성의 정형화를 배격하고 평범한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을 중시하는 하웰즈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시웰 목사의 문학관에 의하면 사일러스의 남북전쟁 참전담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브롬필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브롬필드는 작품의 결말에서 사일러스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비도덕적인 로저스와 거래하지 않았음을 알고 나서 세속적 이익에 초탈한 것을 고상한 취향에 다가선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상당히 극적이고 무의식적 효과가 있다”(315-16)며 낭만적 영웅주의에 빠져든다. 브롬필드가 킹즈베리양의 감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도 동일한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는 시대 변화를 인정하지만 계급적 지위도 지키고 싶은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톰에게 “애정이 즐거움과 이득의 결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56)며 실리를 챙기는 결혼을 종용하면서도 “보스턴을 떠나는 보스턴 사람은 영원한 망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58)며 계급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에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사일러스에 대해서 “양심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 취향은 아니다”(59)라며 고상한 취향을 계급적 표지로 내세워 후발주자들의 상류층 진입을 막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내세우지만, 이런 취향은 실상 감상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브롬필드가 계급적 표지로 간주하는 고상한 취향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일 뿐이다.

3. 집단 정체성 약화와 개인의 탄생

톰은 텍사스를 왕래하며 세상이 보스턴 상류층의 고답적인 삶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의지대로 일과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새로운 동네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네 전통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며 “내가 텍사스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라팜이 [부정적 의미에서]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고 여겼을 것”(57)이라고 고백한다. “그가 국외자로 텍사스를 경험한 것은 가치의 상대성을 배우고”(Li 110) 자아를 되짚어보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톰은 사일러스를 대할 때 “생각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나쁘지 않은 힘이 있다”(59)거나 “이들[라팜 사람들]이 우둔하지 않다”(104)며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톰이 사일러스의 페인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금전적 욕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바깥 세상의 문제들을 조금씩 들여다보며 지냈다”(65)며 해외체류 경험으로 갖춘 외국어 능력을 발휘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제안한다거나(66)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대목(67)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일을 통해 영감을 얻고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고 느낀다(90).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험 투자를 하는 떠돌이 장사꾼 이상의 무언가”(255)를 추구하기 위해 사일러스의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사업 참여 의지를 꺾지 않는다. 이런 톰의 모습은 출신 배경이 다른 사일러스를 동등한 소통 대상으로 인정하였음을 방증한다. 톰에게 사업이란 세상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물질적 풍요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 성취의 경로인 것이다.

톰은 계급과 취향으로 닫힌 세계에서 벗어나 주변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자아를 구현하려고 함에도 태생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톰은 직접 페넬로페에게 애정을 고백하면서 예의범절이라는 계급적 가두

리 밖으로 나오지만 “항상 당신[페넬로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즉 예의범절을 차리느라 대놓고 페넬로페에게 관심을 보일 수 없어서 화제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아이린과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변명한다(224). 게다가, 그는 교양을 갖춘 페넬로페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류층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점은 페넬로페가 톰의 고백 이전에 퍼시스를 향해 “남자들이 여자의 지적 능력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인지 몰랐다”(109)며 내뱉는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 노출된다.

톰과 페넬로페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페넬로페는 겉과 속이 달랐던 톰의 이중적 태도에 당황하여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고백을 거절하면서도 아이린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둘러댄다(194-95). 마치 감상적인 소설도 실제 삶일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192)을 구현하려는 듯, 그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해요”(226)라며 낭만적 사념에 사로잡혀 현실과 무관하게 자기학대를 일삼는 주인공처럼 군다. 그런데 페넬로페가 질투에 사로잡혀 아이린과 톰을 떼놓으려 했다고 퍼시스에게 털어놓는 대화(201)를 통해 페넬로페도 톰과 마찬가지로 표리부동했음이 드러난다. 페넬로페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격지심 때문에 톰을 모질게 대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텍사스에 머물던 스탠튼(Stanton)이 자신의 목장에 대한 신문을 아이린에게 보냈으나 톰이 그런 것으로 오해했음을 알고 나서도 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고수한다(224). 페넬로페는 자기가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개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서야 톰의 고백을 받아들인다(314). 톰과 페넬로페의 결혼은 집단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맥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나’라는 개인의 마음이 가는 바에 충실하여 얻은 결실인 것이다. 인간관계에 절망적일 정도로 심각한 차이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잘 알게 된다면 모든 차이들은 사라질 것”(313)이라는 톰의 주장은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삶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톰은 사일러스가 사업을 넘긴 웨스트버지니아 회사(the West Virginia Company)와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페넬로페와 멕시코로 이주한다(311). 이들의 해외 이주는 두 가문의 가장 훌륭한 남녀의 행복한 결합이라기보다 제국주의적 팽창에 편승하여 세대와 계급 갈등이라는 내부의 파열음을 봉합한 것에 불과하거나 “새로운 문화혼종의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백준걸 683)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팸의 페인트는 그저 미국의 경제적 팽창 경로를 따를 뿐이고 보스턴이 다른 무엇을 교환하며 얻지 않기”(Cadle 68) 때문이다. 톰이 “사업적 열망을 [멕시코에] 적용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군사가 아닌 상업적 용어로 되풀이되는 상징적 정복을 암시”(Lavin 374-75)할 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톰과 페넬로페는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 된다고 여기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에 무게를 둔다. 두 사람의 멕시코행은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면서도 가문/가정의 화합도 이루게 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팽창에 깔린 갈등 치환 전략을 보여준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과 가정성(domesticity)의 미사여구는 전지구적 화합이라는 지정학적 지배의 비전을 내세워 내부의 갈등 혹은 외부의 저항을 무화시키기 위해 제국주의적 정복을 정신적 재탄생으로 전환시키는 용어를 공유하는 것이다”(Kaplan, *Anarchy* 31). 코리 사람들과 페넬로페의 “차이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이다”(316)라는 서술자의 주장처럼 계급적 차이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예외법절과 관습은 우리의 품성보다 삶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확실”(317)하기 때문이다. 릴리(Lily Corey)도 “난 그 녀[페넬로페]가 멕시코로 가서 기뻐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316)라며 계급 간 차이를 의식하며 올케와 한 가족으로 융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제적으로 세대 간 화해와 타협을 시도하

기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현명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톰과 페넬로페의 결혼과 해외 이주는 파편화되는 가족 구성원을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느슨한 연결고리로 붙잡아 개인들의 파편화를 막고 점진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일도록 하여 사회의 안정적 존속에 일조한다. 톰과 페넬로페의 해외 이주는 “라팜이 버몬트에서도 페인트 사업과의 연이 이어지도록 했을 뿐 아니라” 코리 부부도 “19세기 말 보스톤 상류층 문화가 퇴색함에도 유유자적하는 삶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Spears 168).

코리 부부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음에도 집단 정체성이 힘을 잃고 개인중심으로 바뀌는 시대상을 수용한다. 브롬필드는 페넬로페가 상류층 예법을 익힐 것이라며 계급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본래 톰의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37)며 개인의 문제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는 “한 형제가 교양을 갖추면 다른 형제는 야만인일 것”(103)이라며 개인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비판하면서도 상류층에 적응할 확률이 높은 페넬로페를 수용하는 아량을 발휘하며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코리 부인 또한 여전히 라팜 사람들의 취향 부족을 비판하지만 페넬로페의 기지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처음에 잘못된 인상을 받아서 부당하게 대했던 것 같다고 고백한다(237-38).

아이린 역시 코리 사람들에게 취향 부재로 낙인찍히고 톰의 마음도 얻지 못하였지만 소설 후반부에서 자기만의 삶을 개척하려 애쓴다. 그녀는 톰과 어울리고자 타고난 실용적 능력이 아닌 교양과 취향 쌓기에 치중하지만 퍼시스의 눈에는 이런 노력이 ‘재능 낭비’로 비추어진다(119). 그녀는 퍼시스로부터 톰이 페넬로페에게 구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나 “전 제가 뭘 견뎌야 하는지 알아요”(217)라며 버몬트 농가로 떠난 후 마음의 정리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온다(302). 아이린은 톰이 페넬로페를 좋아했다는 점을 안 후 버몬트의 라팜 가문 본적지에

머물면서 사생결단의 심적 연단을 거쳐 자기주도적인 “프론티어 여성”으로 변신한다(Murphy and Gross 12). 아이린은 “마치 무쇠와도 같아서 이곳저곳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베풀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겨냈지만, 또한 필연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아마도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튼 그녀는 잃어버렸던 것이다(305).” 강인해진 아이린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비즈니스맨과 같은 영민함”을 발휘하여 “공정하게 톰과 페넬로페를 대한다”(305)는 점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녀가 버몬트 농장에 거주하면서 서부와 보스턴을 오가며 지내는 모습(319)은 트라우마의 극복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를 다스리며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일러스는 퍼시스에게 톰이 페넬로페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둘 다 아이들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208)며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시웰 목사의 “고통의 경제학”(economy of pain, 212)을 받아들여 “자기희생이라는 그릇된 관념”(213)으로 현실과 괴리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킹즈베리양의 감정 과잉이나 페넬로페의 자기학대는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정서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만일 하웰즈가 이런 입장을 옹호한다면,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리얼리즘의 목표”는 문학과 도덕 두 측면에서 현실에 착근하지 않은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여 “[감정의] 과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Michaels 38).

여기에서, 감정과 도덕을 정확히 측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꼭 필요한 희생을 위해 감정과 도덕의 과잉이 오히려 요구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웰 목사가 “불필요한 희생”을 혐오하다보니 필요한 희생과 이를 통해 가능한 도덕적 정당성과 정서적 호소라는 관념을 받아들

일 수 없는 것”(Crowley, “Portrait” 132)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때때로 반드시 필요한 희생,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감정과 도덕 과잉을 인정한다면, 시웰 목사의 견해는 하웰즈의 리얼리즘 문학관이 라기보다 자의적으로 감정과 도덕의 과잉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에서 유행하는 감상적인 대중 문화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감정과 도덕 과잉은 자본주의 전체의 한 축을 이룬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정과 도덕을 필요한 만큼만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일러스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과 도덕의 과잉 유무에 대한 자의적 재단이 아니라 무슨 맥락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그는 사업 위기를 겪으며 계급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시대에 개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 도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로저스는 사일러스에게 공장을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나 공장으로 연결된 유일한 통로를 철도회사 GL&P가 99년간 임대하였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명난다(230). 이를 안 사일러스는 로저스를 만나 따지며 거짓말쟁이 도둑으로 비난한다(241). 그러자 로저스는 돈을 빌려 사일러스에게 공장을 돌려받은 후 현지 사정에 어두운 영국 사업가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이를 간파한 사일러스는 로저스에게 “네가 새로운 계약을 꾸며 누군가를 약탈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내가 그 사람들의 돈을 훔칠 것이라고 생각하냐”(282)며 반발한다. 로저스는 영국 부자들에게 손해가 생겨도 “[개인들에게 조금씩] 분산되므로 이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할 것”(288)이고 설득하지만, 사일러스는 그의 간청을 거절하고 싼 값에 팔리는 GL&P의 제안에 응한다(291-92). 사일러스가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공장을 돌려본 영국 사업가들에 대해 아래처럼 생각해 보는 대목에 암시되어 있다.

그들[영국 사업가]은 자신들이 독자적이지 않고, 심지어 주요 임무로 이곳에 일종의 공동체 군락을 기획한 영국인들, 어느 정도 꿈을 품은 여타 영국인들의 계획을 따르는 대리인 자격이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했고, 유심히 살펴본 끝에 고용자원이거나 시설이 제안된 공동체의 열정과 사업을 발전시키기에 최적인 것으로 추산되었다는 점에 만족스러워했다.

They[the Englishmen] developed further the fact that they were not acting solely, or even principally, in their own behalf, but were the agents of people in England who had projected the colonization of a sort of community on the spot, somewhat after the plan of other English dreamers, and that they were satisfied, from a careful inspection, that the resources and facilities were those best calculated to develop the energy and enterprise of the proposed community. (285)

사일러스는 영국인 공동체를 미국에 이식하려고 공장을 구입하려는 영국 사업가들을 접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한 가지는 영국 사업가들이 로저스에게 속았거나 혹은 공모하는 의심스러운 악당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85). 사일러스는 자신들의 의도를 청산유수처럼 내뱉는 영국 사업가들이 비싼 가격에 살 의향마저 표명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산을 공공의 먹잇감”으로 여기며 구입대금 중 일부를 착복하는 타락한 부류라 의심한다(286). 무엇보다, 영국 사업가들을 사기꾼으로 의심한 까닭은 이들 중 한 명이 “‘우리는 답을 원했어요—답을 훔쳤어요.’ 그는 정정하였다” (“[W]e hoped for an answer—’oped for a hanswer,” he corrected himself. 287)며 영국인으로 속이려고 코크니 영어(Cockney English)를 내뱉는 대사에 암시되어 있다.

또 다른 생각은 사일러스가 공동체의 대의 구현을 위해 경제적 불이익도 불사하는 영국 사업가들로부터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그는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살려준 짐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듀이양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물질적 보상과 맞바꾸려 했었다. 그러나

제럴라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시달렸던 그간의 사정을 퍼시스에게 털어놓은 후(256-57), 그는 물질로 도덕을 대체하려는 비현실적 상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한다. 이에 따라 그는 사업에 미련을 갖지 않고 유망한 젊은 사업자에게 회사를 넘긴 후 버몬트의 고향으로 향한다(307, 309). 이런 결정은 대량생산의 보급으로 사일러스 페인트 제품의 1/10 가격으로 낮아진 사업 환경 변화(253)를 감안해서 내린 것이기도 하다. 사일러스는 양이 질적 우위를 구축하는 대량생산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310). 그렇다면 그의 버몬트 시골행은 패배주의적 수용이라기보다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사업가가 아닌 투자자이자 후견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에 가깝다. 사일러스가 자신의 의지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언가를 행했으니 다시 동일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이 판단하여 행할 것(321)이라는 단호한 메시지에 잘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일러스의 귀향 속에는 19세기 말 미국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과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며 인본애에 입각한 개인의 도덕적 각성과 실천을 촉구한 당대 혁신주의(Progressive movement)라는 당대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투영되어 있다.⁵⁾

5) 하웰즈는 1880년대 이래로 실제적이지 않고 허황되기에 자기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소설을 읽는 도덕적 훈련을 거치며 공민의 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Trachtenberg 185). 실제로 18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웰즈, 제임스(Henry James), 트웨인(Mark Twain)의 문학세계는 “주로 인물 개인이 경험하는 도덕적 갈등으로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불평등한 정치를 재현하고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지닌 더 넓은 사회적 함의에 관여하는 것으로 관점이 변화”되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리얼리스트들 스스로가 혁신주의 개혁가들도 주목한 사회적 조건들에 개입해야 된다고 느꼈던 충동에 기인”(Cadle 18)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하웰즈의 리얼리즘은 19세기 후반의 혁신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4. 개인 탄생의 의미: 미국적 경험을 통한 공유가치의 획득

사일러스, 톰, 페넬로페, 아이린은 미국의 자본주의화 속에서 각자의 삶을 도모하고자 분투하는 가운데 공히 금욕주의적 태도를 내비친다. 이들은 처한 현실에 따라 상이한 삶을 모색하지만 공통적으로 자기포기(self-renunciation)에 가까운 인내심을 발휘하여 자아를 구현하려 한다. 오하라(Daniel O'Hara)의 주장처럼 “이 소설의 자아는 모든 형태의 포기 에 수반되는 삶의 양식을 실행하는 경험으로부터 생성된다”(O'Hara 98). 이처럼 자기 원칙에 충실하며 절제하는 금욕적인 모습은 자기 홍보와 선전이 장려되었던 19세기 말 미국의 대규모 기업 자본주의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할터넨(Karen Halttunen)이 주장하듯이 “이런 새로운 기업 맥락 하에서, 아심만만한 젊은이들에게 근면, 냉철, 검약의 자질들보다 매력이라 불리는 미묘한 자질과 같은 성격 기술들이 더 유용했다”(Halttunen 207).

아이러니하게도, 하웰즈는 작중 인물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포기가 효과적인 자아구현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일러스는 윤리적 당위성에 집착하여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만 후견인으로 역할을 조정하며 일정한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금융자본의 추상적인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일상에 착근한 삶을 추구한다. 톰은 자신의 가족과 다른 취향을 지닌 페넬로페에게 맞추려 하면서 중재자라는 역할을 모색하고, 페넬로페는 자학적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구애를 거절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아이린 또한 실연의 상처를 자립심으로 포장하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독립심을 갖춘 인격체로 거듭난다. 결국, 하웰즈는 개인의 매력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해진 19세기 말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로저스와 코리 부부를 제외한 『라팜』의 인물들이 자기 원칙을 세우며 각자도생하는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웰즈는 실제로 인물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택한 금욕적 태도가 이 기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치달아 개인들의 소통을 방해하고 공유가치의 형성을 저해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는 “작가 경력 내내 범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가치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법을 가시화 시키려 노력”하는 등 “경계들이 없어진 세상이 어떤 의미있는 목적들도 없는 것은 아닐지 염려한 것이다”(Peysner 98-99). 실제로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대량생산의 확산에 따른 양적 가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교회, 교육과 언론, 전문가들과 정부 모두가 마을 혹은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 내에서 서로가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의미를 발견하는 공동체적 삶을 대체로 지향”(Wiebe 12)하였다는 점에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공유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라팜』에서 각자도생하는 인물들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공유가치는 무엇일까? 그저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물적 토대만이 인물들의 파국을 지연시키는 것일까? 혹은 하웰즈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소란스럽게 울려대는 현실 묘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일까? 이에 대해 포스터(Sophia Forster)는 하웰즈가 “중산층 사회주의자”(Forster 217)라는 모호한 비전을 내세워 중산층이 물질주의와 도덕주의 혹은 보수와 급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 어떻게 중산층의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은지”(Forster 231)를 보여줄 뿐이라고 평한다. 실제로 사일러스의 공장 매매 거부에 담긴 윤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낭만적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파렴치한 로저스에게 공장을 팔 수 없고 익명의 다수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도 없다는 윤리적 확신, 로저스의 딱한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비도덕적 태도, 혹은 도덕적 가치에 무신경하다는 것과 같은 네 가지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 개인의 내면에 얽힌 복잡한 동기들이 텍스트에 구현했다는 사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이라는 집단 정체성만으로 개인을 규정하기 어려워진 시대상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하웰즈가 천재와 상류층의 고귀한 자질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문학에서의 계급적 위계 전복을 의도했다”(Stokes 199)고 단언할 수 없다. 하웰즈를 “중산층 사회주의자”로 집단 정체성과 연관지어 ‘모호하게’ 규정하면 자칫 다양한 개인들이 부상과 각자의 내면에 뒤얽힌 복잡한 심리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웰즈는 『비평과 소설』(*Criticism and Fiction*, 1891)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파편화되는 것을 막는 공유가치로 평범한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위의 글에서 구세계와 달리 온갖 가능성으로 채워진 미국적 경험으로 인해 삶의 어두운 점보다 “생글생글한 면모들”이,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 속의 보편성”이 미국소설에서 다루어진다고 주장한다(*Criticism* 62). 그가 보기에, 미국적인 예술이란 고상한 취향을 드러내기보다 평등한 개인들의 일상에 담긴 아름다움으로 민주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평범함에 대한 공감”(*Criticism* 66)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가 생각하는 리얼리즘은 유대감 형성을 목표로 “모든 사회 계급의 개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의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것이다”(Kaplan, *Social Construction* 22). 하웰즈는 평범하기 때문에 “생각없는 대중”일지는 몰라도 미국 곳곳에서 부딪치며 사람들을 “지극히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상식, 고되지만 정직한 삶, 친절과 호의로 인해 존경한다”(*Criticism* 55)고 토로한다. 이를 통해, 하웰즈의 리얼리즘이 계급, 지역, 세대, 혈연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 약화되는 세대 하에서 개인들이 미국적 경험을 통해 얻는 평등, 호의, 친절, 정직 등의 공유가치를 견지하면서도 각자만의 목표에 따라 삶을 꾸리는 모습을 다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팜』은 미국적 경험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에 관한 하웰즈의 생각을 담고 있다. 나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익도 소중하다고 여기며 침해하지 않으려는 사일러스의 도덕적 면모는 하웰즈가 개인들 사이의 공유가치로 여긴 평등, 호의, 정직과 같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일러스는 부도덕한 로저스에게 공장을 넘기지 않고 사

업계와 어느 정도의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이기적 사업가에서 사회적 복리에 기여하는 양식있는 개인으로 변신한다. 윤리적 후견인으로 변신한 사일러스는 하웰즈가 생각한 당대의 이상적 개인을 대변하는 것이다.

5. 결론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 토대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이를 접하는 개인들은 즐기치게 변하는 현실에 맹목적으로 편승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 혹은 피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맞서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웰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라팜』의 인물들은 물욕에 사로잡히거나, 사업의 포부를 펼치려 해외로 진출하거나, 상류층의 취향을 고수하거나, 완고한 고집을 앞세워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도덕적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들은 배금주의, 고상적 속물근성, 낭만적 유아론에서 벗어나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각자만의 가치체계를 추구한다.

하웰즈는 집단 정체성 약화로 인해 개인들이 파편화되고 마는 현실만 거울처럼 비추지 않는다. 그는 미국적 경험에 토대를 둔 평등, 호의, 친절과 같은 공유가치를 수용한 개인들이 맥락과 동떨어진 이상적 관념이나 세속적 가치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해한다. 『라팜』은 집단 정체성 약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사라지던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서 주인공 사일러스의 도덕적 성취를 내세워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되 민주적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드러난 하웰즈의 시대 진단과 처방은 맥락을 무시한 파편화된 삶이나 이를 초월한 이상적 세계동포주의로의 회귀 모두와 거리를 둔다. 그는 집단의 속박에서 풀려난 개인이 세상과 호흡하며 각자만의 의미로 충만한 삶을 모색

하되 개인들의 파편화를 막는 최소한의 공유가치를 모색하였다. 자본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 책무를 의식하며 사회적 복리를 추구하는 사일러스의 모습은 개인들이 미국인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평등, 호의, 친절, 정직 등의 민주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하웰즈의 시대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Works Cited

- 백준걸. 「과잉의 문화정치—『사일러스 라팸의 성장』에 나타난 대중문화와 리얼리즘」. 『영어영문학』 59.5 (2013): 667-88.
- Anderson, Quentin. *Making Americans: An Essay on Individualism and Money*. New York: Harcourt, 1992.
- Anesko, Michael. “William Dean Howells and the Bourgeois Quotidian: Affection, Skepticism, Disillusion.” *A Companion to American Fiction, 1865-1914*. Ed. Robert Raul Lamb and G. R. Thompson. Oxford: Blackwell, 2005. 499-517.
- Bell, Michael Davitt. *The Problem of American Realism: Studies in the Cultural History of a Literary Idea*. Chicago: U of Chicago P, 1993.
- Broadus, Dorothy C. *Genteel Rhetoric: Writing High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Boston*.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1999.
- Broadhead, Richard H. *Cultures of Letters: Scenes of Reading and Writ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icago: U of Chicago P, 1993.
- Cadle, Nathaniel. *The Mediating Nation: Late American Realism, Globalization, and the Progressive State*.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2014.
- Coontz, Stephanie. *The Social Origins of Private Life: A History of American Families, 1600-1900*. London: Verso, 1988.
- Crowley, John W. “An Introduction to *The Rise of Silas Lapham*.” *American Literary Realism* 42.2 (2010): 151-73.
- _____. “*The Portrait of a Lady* and *The Rise of Silas Lapham*: The Company They Kept.” *The Cambridge Companion to American Realism and Naturalism: Howells to London*. Ed. Donald Pizer. Cambridge: Cambridge UP, 1995. 117-37.
- Forster, Sophia. “Americanist Literary Realism: Howells, Historicism, and American Exceptionalism.” *Modern Fiction Studies* 55.2 (2009): 216-41.
- Girgus, Sam B. “Howells and Marcuse: A Forecast of the One-Dimensional Age.” *American Quarterly* 25.1 (1973): 108-18.

- Halttunen, Karen. *Confidence Men and Painted Women: A Study of Middle-class Culture in America, 1830-1870*. New Haven: Yale UP, 1982.
- Howells, William Dean. *Criticism and Fiction and Other Essays*. Ed. Clara Marburg Kirk and Rudolf Kirk. New York: New York UP, 1959.
- _____. *The Rise of Silas Lapham: A Norton Critical Edition*. Ed. Don L Cook. New York: Norton, 1980.
- James, Henry. "Letter to W. D. Howells." *The Rise of Silas Lapham: A Norton Critical Edition*. Ed. Don L Cook. New York: Norton, 1980. 394.
- Jenkins, R. B. "Howells's *The Rise of Silas Lapham*." *The Explicator* 36.3 (1978): 37-40.
- Kaplan. Amy.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2002.
- _____. *The Social Construction of American Realism*. Chicago: U of Chicago P, 1988.
- Kasson, John F. *Rudeness & Civility: Manners in Nineteenth-Century Urban America*. New York: Hill & Wang, 1990.
- Lavin, Matthew J. "Clean Hands and an Iron Face: Frontier Masculinity and Boston Manliness in *The Rise of Silas Lapham*." *Western American Literature* 45.4 (2011): 362-82.
- Li, Hsin-Ying. "For Love or Money: Courtship and Class Conflict in Howells's *The Rise of Silas Lapham*."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4.1 (1996): 101-21.
- Marchand, Mary. "Faking It: Social Bluffing and Class Difference in Howells's *The Rise of Silas Lapham*." *The New England Quarterly* 83.2 (2010): 283-312.
- Michaels, Water Benn. *The Gold Standard and the Logic of Naturalism: American Literature at the Turn of the Century*.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7.
- Murphy, Rosalie, and Seymour Gross. "Commonplace Reality and the Romantic Phantoms: Howells's *A Modern Instance* and *The Rise of Silas Lapham*." *Studies in American Fiction* 4.1 (1976): 1-14.

- O'Hara, Daniel. "Smiling Through Pain: The Practice of Self in The Rise of Silas Lapham." *New Essays on The Rise of Silas Lapham*. Ed. Donald Pease. Cambridge: Cambridge UP, 1991. 91-105.
- Peyser, Thomas. *Utopia & Cosmopolis: Globalization in the Era of American Literary Realism*. Durham, NC: Duke UP, 1998.
- Pizer, Donald. "The Ethical Unity of The Rise of Silas Lapham." *American Literature* 32.3 (1960): 322-327.
- Prioleau, Elizabeth Stevens. *The Circle of Eros: Sexuality in the Work of William Dean Howells*. Durham: Duke UP, 1983.
- Spears, Timothy. "'Something More Than a Drummer Interest': Commercial Realism in *The Rise of Silas Lapham*." *Prospects* 22 (1997): 153-72.
- Stokes, Claudia. "In Defense of Genius: Howells and the Limits of Literary History." *American Literary Realism* 40.3 (2008): 189-203.
- Tansell, G. Thomas. "The Architecture of *The Rise of Silas Lapham*." *American Literature* 37.4 (1966): 430-57.
- _____. "The Boston Seasons of *Silas Lapham*." *Studies in the Novel* 1.1 (1969): 60-66.
- Trachtenberg, Alan. *The Incorporation of America: Culture & Society in the Gilded Age*. New York: Hill & Wang, 1982.
- Vanderbilt, Kermit. *The Achievement of William Dean Howells: A Reinterpret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68.
- Wells, Gerald K. "The Pheonix Symbol in "The Rise of Silas Lapham."" *South Atlantic Bulletin* 40.2 (1975): 10-14.
- Wiebe, Robert H. *The Search for Order, 1877-1920*. New York: Hill & Wang, 1967.

- 논문 투고일자: 2017. 05. 12
- 심사 완료일자: 2017. 06. 16
- 게재 확정일자: 2017. 06. 20

Abstract

**The Weakening of Collective Identity in the Birth
of Modern Individuals:
Howellsian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in
*The Rise of Silas Lapham***

Dong-hwan Le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illiam Dean Howells's *The Rise of Silas Lapham* focuses on the meaning of collective identity breakdown in late nineteenth-century American society through the lens of the then rising individualism. As the traditional class identity lost much of its validity, people had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 different contexts in their own ways. The established common social values such as class and family ties were disintegrated while each individual had to survive in the turmoil of the burgeoning market economy. According to Howells, individuals can share the democratic experiences in the American soil which shape alternative common values to stick them together; the weakening collective identity is substituted for the individual identity coupled with the national identity. Such an Howellsian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is described in *Silas Lapham*.

Key Words

The Rise of Silas Lapham, William Dean Howells, Individualism, National Identity, Post-bellum American Society